



忠北大同門會報

真理
正義
開拓

발행인 : 강신우 편집인 : 박노균 발행소 : 충북대학교총동문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전화 : 043-261-3121 FAX : 043-272-3122 인쇄처 : 중부출판사

충북대학교 『발전후원인의 밤』 성료



주 | 요 | 내 | 용 | 목 | 차

- 신년사 / 총동문회장, 총장 2
- 동문회 소식 3
- 동문 동정 4, 5
- 모교 소식 6, 7, 8
- 동문 단상 / 정효구 9
- 동문 단상 / 송재용 10
- 세금절약 가이드 ①② / 송창근 10
- 노무 상식-연봉제에 관하여 / 성기정 11
- 감기약 복용의 허와 실 / 이명구 12
- 2003 총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13
- 사범대학 장학기금 출연자 명단 13
- 단대 및 지회 동문회 현황 14, 15

11월 21일(금) 오후 6시에 모교는 개신문화관에서 200여명의 학교발전후원회 인사를 초청하여 『발전후원인의 밤 및 기금출연자 예우기념물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2002년 11월 출범한 ‘충북대학교 발전후원회’(회장 홍재형 국회의원) 창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재단 설립 이래 우리 대학에 기금을 기탁하여 주신 분들의 명단을 수록한 ‘충북대학교에 도움을 주신 분’ 책자 발간과 함께 그 숭고한 뜻을 영원히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기탁자 명단을 모교의 상징건물인 개신문화관 1층 로비 벽면에 연도 별로 돌(艾石)에 새겨 ‘예우기념물’로 영구히 보존하였다. 또 앞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기탁자의 명단도 계속 추가로 새겨 보존하기로 하였다.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1974년 장학재단으로 설립된 이래 지난 30년 동안 2,800여명의 기탁자가 현금, 부동산, 물품 및 유가증권으로 총 200여억원을 쾌척하여 이 기금을 바탕으로 장학지원, 연구지원, 도서확충, 시설확충, 국내외 학술교류, 구성원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활발히 펼쳐 동북아권 중심대학, 나아가 세계 속의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모교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신년사



존경하는 충북대 동문 여러분

2004년 갑신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의 태양이 힘차게 솟아올라 온누리를 찬란하게 비추는 이때, 우리 충북대 동문과 가족 모두에게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3년은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북핵 위기, 사스 파동, 새 정부 출범, 불법 정치자금 수사, 태풍 매미의 피해, 청년실업자, 노사문제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우리 충북대 동문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중부권 지역 사회에서 우리 충북대 동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문들이 이미 중부권 지역 사회의 중심축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제 한국 전체와 세계로 우리의 관심을 확대해 나갈 만한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의 핵심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남대가 개방되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고 새 행정 수도 후보지로 물망에 오르게 됨으로써 행정의 중심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창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되었고 오송 첨단의료산업단지가 착공됨으로써 우리 지역이 첨단산업기지로써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들 주요 시

설의 개방, 이전, 조성, 착공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개통되고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고속철도와 항공 교통망의 연계는 우리 지역을 행정, 교통,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중부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충북대 동문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동문 서로간의 화합과 단결, 봉사와 희생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를 기꾸어내는 일이 우리 모교와 동문 모두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대 동문 여러분!

정치 사회적 변혁기를 맞이하여 우리 동문 모두 적극적으로 우리 모교 충북대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합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동단결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우리 동문들의 역량이 결집되어 힘을 발휘할 때 우리 지역 사회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고 우리 국가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04년 1월 일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장 강 신 우



친애하는 졸업동문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졸업동문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나 대학으로서나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대학교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각 부문별로 대표적인 변화만 들어본다면, 우선 교육부에서 입학자원의 감소로 모든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수학생 유치를 노력한 결과 이번 입시의 지원경쟁률은 5.24:1로서 개교 이래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구부문에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수주 순위가 전국대학 중 15위가 되는 등 총 720여 과제에 220억 9천여만원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정보화사업에서 국공립대학 중 1위로 선정되었으며, 지방대육성사업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된 예산은 각각 정보화 및 바이오 연구 정보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의 사업으로 청주시와 관학협정을 체결하고 10여개의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와 공동 노력으로 오창단지 테크노파크 사업유치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교육 및 연구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창의 신크퍼스 부지 14만여평 등기이전, 공대 5호관, 자연대 4호관, 의대 2호관, 법대 증축, 천문대, 실험동물사육센터,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생명과학연구소, 남문 및 동문도로 선형공사, 박물관 내장공사, 구청주과학대 시설개선 공사, 사회대 및 사범대 보수공사 등이 설계 또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발전기금 모금도 2003년 말 현재 목표로 설정한 200억원을 상회하였고 30여년간 2800여명에 이르는 고마운 분들의 출연내역을 정리하여 책자발간과 함께 우리대학의 대표적 건물인 개신문화

관 벽면에 성함을 기록하여 영원히 기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개신가족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지난 해에 이루어졌지만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려워져 있고, 국가나 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2010년 동북아 중심대학으로 도약하지는 비전을 담은 제5차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대된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이제는 수립한 계획의 착실한 실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학이 지역혁신주체가 되어 경쟁력있는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방안으로 금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산업지원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그 외에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오송역 확정,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 신형정수도법 및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국회 통과 등 우리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학내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발전의 호기를 살리기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졸업 동문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학교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응집된 힘으로 충북대학교의 지력을 보이는 한해를 만듭시다. 우리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국가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으로 졸업생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는 선도대학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도록 합시다.

금년에는 새로운 충북대학교를 만든다는 각오로 세계 속에 우뚝 선 선진대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일

충북대학교 총장 신 방 응

동문회 소식

총동문회 행사

제11회 총동문체육대회

10월 19일 제11회 총동문체육대회가 13개팀 1,00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대운동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에 총동문회 강신우 회장의 개회사와 모교 신방웅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배구, 족구, 줄달리기, 800m계주 경기가 열렸으며,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이게입과 동문가족장기자랑이 열렸다. 경기결과 중북별 우승은 충북대부설중고(배구), 흥덕연구소(족구), 흥덕연구소(줄달리기), 흥덕연구소(800m계주)가 하였으며, 종합우승은 흥덕연구소(회장: 최현호), 중



산하동문회 행사

약학대학동문회 제31회 정기총회

약학대학동문회(회장 이종연)는 11월 30일 오전 11시 약학대학 시청각실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종길 간사의 사퇴로 2003년도 회무보고, 재정보고, 세입·세출결산(안)심의, 회장 및 임원 선거, 2004년도 사업 및 세입·세출예산(안)심의가 있었으며, 회장 및 감사 선출에는 총회의장에 조순형(58) 동문이 맡아 20대회장에 이종연(59)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 선입하였고, 감사에 정운해(59) 김재길(61)동문을 재선출되었다. 이종연 회장은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학과 창설 50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를 수 있도록 동문들의 단결된 모습과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후원을 부탁했다.

이명구(72) 약대학장은 동문 선후배께서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신임 정재경, 황방연교수를 소개하였다.

동문회지 Recipe 12호는 편집위원장 조성호(63) 동문(영진약국)의 책임하에 만들기로 하였다.

조순형 장학기금위원회 위원장은 장학기금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와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대역장학금이 전부 회수되면 새 장학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장학기금총액은 1억2천2백만원으로 보고하였다.

- ▶수상자 : 공로패: 박상수(67) 강원도동문회장, 축하패: 유명호(61) 증평군수, 박사학위축하패: 최승주(61) 삼진제약 회장, 이동호(8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약학대학동문회 연락처: 261-2810



합준우승은 농업기반공사(회장 김정환), 종합3위는 충북대부설중고 회장 김봉수가 차지하였다. 한편 경품추첨에서 최우수 행운상(대형TV)은 신민철(토목81) 가족이 수상하였으나 체육부에 기증하여 훈훈한 모교 사랑을 베풀었으며, 차기 대회부터 점심식사는 개신상공인회 회장 신민철)에서 전문문가족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 ▶참가팀 : 개신민우회, 개신상공인회, 농업기반공사, 농협, 삼화전기, 충북대학교,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원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흥덕연구소
- ▶천조 : 신방웅, 강신우(농학61), 김주섭(토목70), 연홍철(농학63), 정동주(농학63), 김내수(축산68), 석영선(연초68), 양재욱(약학70), 박도희(수학71), 이재경(약학72), 김명수(체육74), 한재성(인학74), 이명원(토목76), 송태영(행정79), 신민철(토목81), 최현호(법학81), 장윤식(식품82), 조성록(인학82), 손인석(경영90), 손희원(행정교15), 송하식(경영석94)

제3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10월 29일 오전 7시 30분 제3회 총동문회장배골프대회가 골프동호회회장 영광식) 주관하여 청주그랜드C.C)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9조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경기결과 메달리스트 이철우(토목77), 우승 조천희(토목79), 준우승 김요식(화공78), 버디상 신영철(농학63), 파상 이명원(토목76), 보기상 황동민(안전87) 동문이 수상하였다. 시상식후 간담회에선 보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골프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차기 대회부터는 6월 셋째 주 수요일로 확정 발표하였다.

- ▶경품천조 : 영광식, 김요식, 윤진환, 신민철, 박용만, 이은봉, 최낙정, 손인석 동문

재경 약학대학동문회 정기총회

11월 20일 오후 7시 신촌거구장에서 재경 약학대학동문회 정기총회가 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제9대 회장 및 임원 선출이 있었다.

회장에는 박순배(69 세브란스병원 약제부장 011-229-1329) 동문, 감사 연정숙(63) 장석구(67) 동문, 부회장 안영숙(69) 남숙희(70) 임교현(73) 우석락(74) 홍성화(79) 윤영갑(84) 동문, 총무 이상진(78 근화제약 이사), 여동문회장 정의자(63 화성약국), 여동문부회장 김경순(70 신승보약국) 동문이 선출되었다.

약학대학 강원도 동문회 정기총회

11월 15일 ~16일 속초시 설악 한화론도에서 약학대학 강원도동문회 제25회 정기총회가 50여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회장 이순복(73 강릉메디팜약국033-641-1320), 부회장 김삼근(73.원주 문화약국) 안순원(82.도계 거북약국), 총무 이승해(76.경선 임계약국033-562-6007), 감사 이상호(74.원주 문막약국) 김 용(75.삼척 유일약국)

외과대학동문회 송년회

12월 13일 오후 7시 모교 청풍명월에서 제1회 외과대학동문회 송년회가 1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법과대학동문회 정기총회

4월 19일 오후 6시 모교 청풍명월에서 법과대학동문회 정기총회가 노병호 법대학장을 비롯한 내빈과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선 회칙개정 및 임원 개편이 있었는데, 회장에 법과대학 교수인 김수갑(80)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 김광선(80), 이법혁(80), 김우성(81), 최현호(81), 최윤숙(81), 손태영(82), 이경용(82), 김경희(83), 지용민(83)동문, 감사에 원정희(81), 섬기정(83)동문이 선출되었다. 김수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권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법과대학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동문회 명부 발

2003충북대학교총동문회 송년회

12월 19일 저녁 6시 모교 청풍명월에서 2003년도 충북대학교총동문회 송년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강신우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동문들의 모교 사랑에 대해 치하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 하면서 새해에도 합찬 출발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2004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최현호(자민련 흥덕지구당위원장) 동문, 송태영(한나라당 흥덕구) 동문, 박영호(열린우리당 흥덕구) 동문의 출정인사, 원로 동문들의 덕담과 함께 만찬으로 이어졌다.



동문회보 편집위원회 구성

2003년 11월 1일자로 동문회보 편집위원이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 위원장: 박노균(국어교육73) 국어교육과 교수
☎. 011-9842-5529 / 261-2667
- 위 원 : 김길하(농생물 79) 농생물학과 교수
☎. 011-460-7796 / 261-2555
김수갑(법학 80) 법학부 교수
☎. 011-9072-9441 / 261-2628
이종연 (교육 80) 교육학과 교수
☎. 011-9408-0080 / 261-2652
장윤식(식품 82) 중부출판사 대표
☎. 011-461-5474 / 252-7474

간, 둘째 학년별, 지역별, 직업별동문회 활성화, 셋째 동문회보 발행, 넷째 재원 확충, 다섯째 홈거빙데이 연례화를 공약하였다. (연락처: 261-2620, 2628)

국어교육과동문회 송년의 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총동문회(회장 충북예술고 이재철)에서는 12월 6일, 흥덕구 비하동 리호관광호텔 연회장에서 동문 상호간 친목과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한 '국어과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100여명의 선후배 동문들이 재학 당시의 은사님과 재직교수님들을 함께 모시고 만나서 반갑고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어교육과 3회 동기회(74학번 회장 총대부고 이창희)에서 주관하였는데, 1부에서는 은사님들에 대한 기념품 증정을 통해 사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재학 당시 74학번의 지도교수였던 이수봉 교수님으로부터 '學而不厭 誨人不倦(배우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의를 들으며 개인별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되새기고, 나날이 성장해 가는 모교에 대한 사랑을 키웠고, 2부에서는 도내 또는 타시도에서 근무하는 동문들이 서로간의 동정을 나누고, 대부분 교육 개혁의 중심에 선 현장 교사들로서 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민남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박인근 현 사범대학장님이 직접 참석하시어 축하 말씀과 아울러 사범대학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부하셨다.

국어교육과는 현재 28회 총 1,025명의 졸업생들이 충북도내(455명), 서울 경기지역(300여명) 등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총동문회에서는 해마다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열어 동문으로서 우의를 다지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농학과동문회 정기총회

4월 26일 오후 4시 농대 합동강의실에서 농과대학 농학과동문회 정기총회가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임원 개편에서는 회장에 농촌진흥청 수월 원예연구소장인 임명순(64) 동문, 사무국장에 농학과 교수인 조용규(76) 동문이 선출되었다. (연락처 : 261-2514)

화학학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10월 3일 10시에 모교 소운동장에서 제16회 화학과 동문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가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에 정기총회가 열렸고, 오후엔 선후배간 축구, 야구, 축구 경기를 하였으며, 생화학과의 친선축구 경기를 가져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건축공학과동문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10월 12일 건축공학과동문회(회장 김환호)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가 200여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소운동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토목공학과동문회 송년의 밤

12월 6일 토요일 오후6시 토목공학과동문회(회장 김주섭) 제26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명암타워에서 2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주섭 동문회장의 환영사, 김성보 학과장의 축사, 전민우 교수의 20년 근속패 증정, 자랑스런 동문패(공로패, 박사패, 기술사패) 수여, 감사보고 및 결산, 만



찬, 여흥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자랑스런 동문패:** 이상열(70), 공로패 : 홍성철(87), 강창무(87), 기술사패 : 구관서(72), 유재환(80), 최중현(82), 정인균(82), 김범수(83), 이병만(83), 임기운(83), 양선직(84), 문장용(85), 이완수(86), 오병룡(86), 이재형(87), 박사패 : 김상수(80), 이재용(83), 류택은(88), 강종범(89), 정성혁(90), 안병철(90), 박종철(93), 안창진(대학원), 백승철(대학원) (토목공학과동문회 연락처 : 262-3900)

경영대학원 동문회 2003경영인의 밤

12월 13일 오후 5시 청주관광호텔에서 경영대학원 동문회(회장 송하식) 제2차 정기총회 겸 2003 경영인의 밤 행사가 이현중 경영대학원장을 비롯한 1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내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송하식 회장 후임에는 단독 추천된 권오중(농협중앙회 석교동지점장)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회칙 개정을 통해 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경영대학원동문회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제정한 제1회 '올해의 MBA'에는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동문이 선정되어 상패가 수여됐다.



법무대학원 고급법무지도자과정동문회 정기총회

4월 15일 가경동 백제호텔에서 법무대학원 고급법무지도자과정동문회 정기총회가 노병호 법무대학원장, 강신우 총동문회장, 류근홍 법무대학원동문회장, 금영관 법과대학동문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개편이 있었는데 회장에 박익순(57기) (주)미성음료 대표이사가 선출되었다.

ROTC동문회 회장단 모교 교관단 격려

11월 13일 천일농장에서 ROTC동문회 회장(5기 정동주) 및 관계인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모교 학군단 단장대령 최찬영을 비롯하여 교관들의 대내외 교육,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학내 대소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준 노고를 치하하였다.

개신상공인회 제9차 정기총회

1월 29일(목) 오후 6시 동문운영식당인 토방석갈비에서 2004년 개신상공인회 제10차 정기총회가 회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도 회장 신민철(토목81), 사무처장 최낙정(연초83)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2004년도 임원선출이 있었다. 2004년도 회장에 박용만(생물81), 수석부회장에 황문서(경제81), 사무처장에 김덕래(화공83)가 선출되었으며, 이어서 2003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200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 회원들은 충북대학교 동문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의 선봉으로 사업적 성취를 이룩하여 21세기 선두주자로서 동문의 결속을 다지고 단결된 힘으로 동문회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취 임

- ◆서병각(농학59) 동문 재정보은군민회장 6월 8일 재정보은군민회 총회에서 서병각 동문이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서동문은 청주시의원으로 사직 등에서 대륙특수인쇄소를 경영하고 있다. (연락처 : 274-4288, 011-462-4288)
- ◆유명호(약학61) 동문 증평군수 취임 지난 10월 31일 초대증평군수 선거에서 유명호 동문이 당선되어 11월 1일 증평군청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연락처 : 835-3005)
- ◆연중희(농화67) 동문 흥덕구청장 취임 1월 6일 전 청주시 경제과장이었던 연중희 동문이 흥덕구청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68-8201)
- ◆김내수(축산68) 동문 농과대학장 취임 9월 1일 모교 축산학과 교수인 김내수 동문이 농과대학 학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61-2500)
- ◆김용명(약학70) 동문 충북새마을협회장 4월 10일 충북새마을회관에서 본회 부회장이며 정원균 미원에서 제일약국을 경영하는 김용명 동문이 제14대 충북새

- 마을협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98-0033, 011-462-1046)
- ◆김광렬(화공71) 동문 공과대학장 취임 9월 1일 환경공학과 교수인 김광렬 동문이 공과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61-2360)
- ◆박종석(화공73) 동문 청주환경출장소장 5월 12일 박종석 동문이 금강환경관리청 청주환경출장소장으로 취임하였다. (연락처 : 윤천동 1573 동일빌딩2층 011-459-0128, 262-0128)
- ◆박재명(행정77) 동문 유구도서관장 4월 1일 박재명 동문이 공주시 유구읍 유구도서관장에 부임하였다. (연락처 : 041-841-1196, 016-410-0675)
- ◆엄대섭(행정90) 동문 증평 축구협회장 5월 30일 현 괴산군의회 의원이며 도룡건설(주) 대표이사인 엄대섭 동문이 증평 축구협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836-6399, 011-461-6827)
- ◆이상열(토목70) 동문 건설협회충북도회장 11월 6일 성창산업(주) 대표이사인 이상열 동문이 명암타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7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92-3627)
- ◆이풍희(토목70) 동문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장 12월 8일 이풍희 동문이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장에 부임하였다. (연락처 : 대전 대덕구 비래동 361-8, 042-630-7206, 019-420-9912)
- ◆최현섭(약학79) 동문 한벌로타리클럽 회장 7월 1일 부부약국을 경영하는 최현섭 동문이 청주한벌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 (연락처 : 259-4621)
- ◆박노성(교원석01) 동문 전국시도교총연합회장 12월 18일 전국시·도교총연합회 총회에서 중앙초등학교장이며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인 박노성동문이 충북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시도교원연합회장에 추대되었다. (연락처 : 256-2686, 011-483-5470)
- ◆손인석(경영90) 동문 청주JC 회장 취임 12월 18일 광진건설(합) 대표이사인 손인석 동문이 청주JC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011-462-1716)
- ◆신대회(법학94) 동문 청주지방법원 판사 부임 2월 3일 신대회 동문이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였다. (연락처 : 299-7027)

승 진

- ◆이재욱(토목74) 동문 한국도로공사 본사 부처장 (연락처 : 011-881-7116)
- ◆남진영(행정84) 동문 한국도로공사 부장 (연락처 : 016-9774-0131)
- ◆최성환(법학80) 동문 경찰청 경정 (연락처 : 016-402-7838)

개 업

- ◆이규진(약학72), 오현국(약학76), 류호진(약학76) 동문 동화약국 개업 12월 10일 상당구 용암동 세영첼시빌 APT 맞은편에 대형약국인 청주동화약국을 개업하였다. (연락처 : 296-6000)
- ◆이규진(약학72) 동문 우리밀제과점 개업 12월 13일 동화약국을 경영하는 이규진

- 동문이 분평동 농협하나로마트내 우리밀 제과점을 개업했다. (연락처 : 287-2900)
- ◆연교홍(화공74) 동문 충북과학상사 이전 상당구 영동에서 충북과학상사를 경영 하던 연교홍 동문이 사무실을 북대동 세무서인근으로 이전 개업하였다. (연락처 : 256-6688)
- ◆이재명(화공77) 동문 '이재명베이커리' 개업 5월 24일 이재명 동문이 율랑동 두진백로 상가102호에 이재명베이커리를 개업했다. (연락처 : 213-0075, 019-822-2796)
- ◆김요식(화공78) 동문 선·프라자 옛날화로구이 개업 12월 6일 요식업 전문가인 김요식 동문이 용정동 순환도로변에 선·프라자 옛날화로구이 식당을 개업하였다. (연락처 : 297-1144)
- ◆방일주(법학80) 동문 메기대감 개업 11월 20일 방일주 동문이 상당구 수동에 메기대감 청주점을 개업하였다. (연락처 : 254-5040)
- ◆이범혁(법학80) 동문 늘푸른한의원 개업 4월 26일 이범혁 동문이 흥덕구 사직1동 (구)국보제약 골목에 늘푸른한원을 개업하였다. (연락처 : 273-4206, grenhari@hanmail.net)
- ◆한광석(임학80) 동문 한대감네 개업 3월 29일 1983년도 농과대학학생회장을 역임한 한광석 동문이 청주역 초인에 청동오리요리 전문점이 한대감네식당을 개업하였다. (연락처 : 233-9993, 232-7959)
- ◆김덕래(화공83) 동문 고향 개업 개신상공인회 2001년도 사무국장을 지낸 김덕래 동문이 가경동에 닭고기전문요리집인 고향을 개업하였다.

(연락처 : 235-3257)

◆양태식(농경83) 동문 한국오리영농조합 법인 개업

7월 20일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에 한국 오리영농법인 공장을 확장 개업하였다. (연락처:878-2792)

◆이은규(법학85) 동문 법무사사무소 개소 여성법 무사인 이은규 동문이 흥덕구 수곡동 83-30번지에 이은규법무사사무실을 개소하였다.

(연락처 : 285-5200)

◆김한민(법학89) 동문 법무사사무소 개소 4월 15일 법무사인 김한민 동문이 가경동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에 법무사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연락처 : 237-5001, 016-280-6954)

◆구본석(경영93) 동문 명가 개업

1999년도 총학생회장인 구본석 동문이 하북대에 한정식 명가를 개업하였다. (연락처 : 234-2320, 011-467-1971)

◆송태영(행정79) 동문 청주시립 사무원 개소 11월 27일 한나라당 부대변인인 송태영 동문이 2004년 4월 흥덕구 송산을 위해 병명사거리에 청주시립 사무원 개소하였다.

(연락처 : 흥덕구 병명동18-27 인화빌딩2층, 274-6200, 011-9753-9811)

◆박영호(법학85) 동문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당선 1월 27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충북선거인단대회에서 98년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박영호 동문이 중앙위원에 당선되었다. 박 동문은 4월 총선에서 청주흥덕갑구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분평동 귀빈에식장 맞은편에 충북희망네트워크 사무실을 개소하였다.

(연락처 : 285-6605, 011-375-5179)

○ 수 상 ○

◆채수병(교원석99) 동문 스승의 상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일보가 제정한 제22회 한국교육자 대상에서 단양교육장인 채수병 동문이 스승의 상을 수상하였다. 채 동문은 교실에 프로젝션TV, 컴퓨터 같은 멀티미디어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2000-2004년 충북교육정보화 추진 계획을 입안하였다. (연락처 : 단양읍 별곡리304 단양교육청 423-6005)

◆강권혁(독문88) 동문 충북 세제분야 최우수 발표자로 선정 5월 16일 충청북도가 실시한 지방세정연찬회에서 세제분야에서 흥덕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강권혁 동문이 최우수과

제 발표자로 선정되어 6월 3일 전남 해남에서 열리는 전국지방세정연찬회에 충북 대표로 선발되었다. (연락처 : 269-8583)

◆전우배(행정94) 동문 가족사랑 이메일편지 금상

5월 30일 충북도청 경제과에 근무하는 전우배 동문이 대한어머니회충북연합회가 주최한 제3회 가족사랑 이메일 편지쓰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연락처 : 220-3111-7, 011-9553-8821)

◆이중훈(산업석00) 동문 국무총리상

9월 1일 청주시청 도시과에 근무하는 이중훈 동문이 2003충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수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 동문은 지난 97년 2월부터 청주시 도시계획 담당을 맡아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 주민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간담회를 여는 등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수립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락처 : 220-1438)

◆김종벽(축산67) 동문 인쇄문화상

9월 3일 고인쇄박물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청주시 재무과장인 김종벽 동문이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수여하는 인쇄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김동문은 지난 99년부터 4년 동안 청주 고인쇄박물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박물관 증축 및 확장, 청주국제인쇄출판박람회 개최 등으로 인쇄 문화의 발상지인 청주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직지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데 기여하였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고인쇄전시회와 국제학술회의, 아태지역 기록유산 워크숍을 통해 직지와 우리의 고인쇄문화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금속활자 인쇄의 중추국임을 인정 받는데 지대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했다. (연락처 : 220-6200)

◆배기웅(계산통계83) 동문 국무총리상 11월 8일 충북도청 총무과에 근무하는 배기웅 동문이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제21회 공무원 교육발전대회에서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연락처 : 220-3033)

◆이왕영(원예78) 동문 제1회 충북 바이오농업인 대상 12월 23일 제1회 충청북도 바이오농업인대회에서 (주)씨드텍코리아 대표인 이왕영 동문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동문은 충청북도에서 오창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공학단지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1회 충청북도

바이오농업인상을 제정하여 수상하였다. (연락처 : 231-8815, 011-486-5340)

◆손부남(미술77) 동문 올해의 좋은 작가상 수상 12월 27일 무심갤러리 후원회인 무심미술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작가상에 화화작가인 손부남 동문이 수상했다. 손동문은 그동안 17회의 개인전과 한국국제아트페어, 서울화랑미술제, 서울관화미술제, 대구아트엑스포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중앙회단과 지역회단에서 중견작가로서 입지로 확보하고 있다. (연락처 : 018-411-3001)

◆정은재(원예85) 동문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 11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기능올림픽대회 통양꽃꽂이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연락처 : 02-3401-8323, 016-212-5833)

○ 합 격 ○

◆박경국(농경77) 동문 정책분석사 1급 충북도청 전경제통상국장인 박경국 동문이 충북에선 처음으로 정책분석평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연락처 : 220-3100, 011-459-0307)

◆최낙현(식물96) 동문 제9회 지방고시(기술직) 합격

◆김문석(회계90) 동문 제38회 공인회계사 합격

◆이상진(회계90), 박병기(회계90), 김기석(회계95), 양기정(회계95) 동문 제40회 세무사 합격

◆최영진(의예93) 동문 2월 8일 전문의시험 외과부문 전국 수석 합격

○ 전 시 ○

◆이돈희(미술75) 동문 개인전 4월 1일~15일까지 중견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돈희 동문이 우암갤러리에서 6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이 동문은 구상과 비구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독특한 조형언어를 구축해 온 작가로 그동안 대표적인 공공조형물들이 속리산 조각공원(보은), 대우타워(청주), 음성군 상징조형물(음성), 롯데마트넷(충주), 원봉공원(청주), 문자거리(청주) 등 있다. (연락처 : 293-5337)

○ 미 담 ○

◆박명식(약학65) 동문 옥천군 장애인협회에 1억 기증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에서 박약국을 운영하는 박명식 동문이 지난 4월 22일 자신도 지체장애 4급이면서 지난 30년 동안 매일 1만원씩 모아 1억원의 장학금을 옥천군 장애인협회에 기증하여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박 동문은 지난 78년 고향에서 자신이 주도가 된 충효장학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140여명의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주었으며, 금년에도 저소득 장애인 자녀 12명을 선정하여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대학생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했다. (연락처 :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박약국, 732-8050)

◆박범순(사회83) 동문 "장애인 어려움 함께 하며 돕는 공무원" 청원군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박범순 동문은 지난 92년부터 장애인 복지 업무를 맡아보면서 이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9년 미원면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는 각 마을을 다니며 장애인을 위한 시책 등을 널리 홍보했고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시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등 항상 이들과 함께 했다. 박 동문의 이런 노력으로 지난 99년 미원면내의 장애인 등록 인원이 136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230명으로 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도 25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 또 자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찾아 알선하고 자립자금지원을 받도록 했고,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을 위해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연락처 : 251-3313, 016-465-3948)

○ 신규임용교수 ○

장근욱(농화80) 농화학과, 나경희(영교81) 영어교육과, 이기수(미술82) 미술과, 권순길(의학91), 김상국(의학91), 이기만(대원00) 이상 의대, 우선희(농학80) 식물자원학과, 정현상(식품공83) 식품공학과

○ 후 원 회 ○

◆최현호(법학81) 동문 후원회 개최 최현호 자민련 청주시 흥덕구지구당 위원장은 2003년 10월 15일 저녁, 시내 강서동 소재 스카이 컨벤션센터에서 지구당 후원회를 개최한 바, 1,0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연락처 : 269-0202)

[동문회비 납부안내]

지로입금
동문회보에 동봉된 지로를 이용합니다.
(용지에 자세한 인적사항을 적어 보내 주시면 동문 찾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통장입금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할 경우 동문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04-12-080690 (예금주 : 강신우)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모교소식

◎ 2004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 5.24:1로 개교 이래최고기록

우리대학이 지난 12월 15일 2004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개교 이래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하여 6일 동안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모집인원 3,095명에 16,231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5.24:1로 작년 평균 경쟁률 2.51:1의 2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군별로는 가군이 2,008명 모집에 7,948명이 지원하여 3.96:1을 기록하였고 수능성적만으로 전형형을 치르는 나군이 1,040명 모집에 8,255명이 지원, 7.9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군)는 나군의 약화대학 약학·제약학과군으로 16명 모집에 471명이 지원하여 29.44: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14명 모집에 390명이 지원한 자연대학 수의예과가 27.86:1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인문대학 미술과 동양화 전공으로 10명 모집에 13명이 지원하는 데 그쳐 최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번 정시모집의 실기고사와 사범대학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12월23일(화)에 해당 단과대학에서 실시되었으며 합격자는 2004년 1월 20일(화)에 본교 정문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였다.



◎ 국가고시 합격자 총13명

2002년도 사법고시,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국가고시에 우리 학교 동문이 13명 합격했다.

지난해 12월 9일 은민호(토목공학 87) 동문이 충북도내 시·군 공무원들 가운데 토목시공기술사에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이항열(환경공학 90), 박선일(법학과 94) 동문이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또한, 문석구(전기전자공학부 87) 동문이 제8회 지방행정고시에, 박진우(전기전자공학부 88) 동문이 38회 기술고시에 합격했으며 신수철(재료공학 90) 동문은 39회 변리사 시험에 통과했다.

그리고 제3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유영록(회계학 87) 이엄기(회계학 92), 김형철(회계학 92), 강문수(회계학 84) 동문이, 제8회 법무사 시험에는 이은규(법학 85), 김한민(법학 89), 곽미재(법학 90) 동문이 합격했다.

충동문회 유길영 사무처장은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동문들의 훌륭한 사회 진출이 학교발전과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여학생기숙사 계영원 개관식

여학생기숙사 계영원이 완공되어 2월 27일 15:00에 개관식을 가졌다. 4년여의 공사기간과 55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어 완공된 신축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11층의 건물로 세탁실·다리미실·휴게실·도서관 등의 공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파트 형으로 설계되어 8명의 학생이 거실·화장실 겸 세면실·베란다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실당 2인 1실의 방이 4개 있다. 지상 1층에서 10층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지상 11층은 GUEST HOUSE로 운영된다. 신축기숙사 수용인원은 406명으로 우리대학 학생기숙사 전체수용인원은 1,339명으로 확정되었다.



◎ 학교주변 왕도 오솔길 조성

우리대학은 청주도심권의 환경친화적 자연환경을 구비한 최적조건의 캠퍼스 부지를 활용하여 도심속에서 체력단련을 겸하여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오솔길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확정하고 지난 4월 9일 착공에 들어갔다.

작년 11월 24일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염원하는 토목공학과 동문회에서 발전후원금을 기탁하여 추진되는 이 사업은 캠퍼스 울타리를 따라 폭 2m에 총 연장 4,563m의 오솔길(마사토)로 조성된다. 오솔길 중간에는 2곳의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개방, 주민과 학생들이 산책 및 조깅, 삼림욕 코스로 무



료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순차적으로 오솔길 주변에 운동시설과 화장실, 수도시설, 가로등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갈 예정으로 학내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호흡할 수 있는 운치 있고 아늑한 개방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한국의 중심대학으로의 위상정립과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직임명

4월 1일자로 모교 교육연구처장에 박병호(도시공학과) 교수, 학생입학처장에 송범현(농학74, 식물자원학과) 교수, 기획협력처장에 임기조(전기공학과)교수가 보직 임명 되었다.

◎ 연초연구소 국립대 최초KOLAS 인정 획득

우리대학 연초연구소(소장 신주식)는 지난 10월 29일자로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으로부터 화학시험부 분 중 권련담배 연기성분 분석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인정(제207호)을 획득하였다.

KOLAS인정제도는 정부가 날로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 운영 요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ISO/IEC 17025가 요구되는 실험기관으로서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KOLAS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은 전국적으로 200여 곳에 불과하며 민간기업체가 대부분으로 국립대학이 획득한 예는 전무하다. 특히 담배연기성분분석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획득은 우리대학이 유일하다.

이로써 연초연구소는 인정분야에 대한 시험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담배제조 회사가 제품 담배 품질 관리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기 성분 측정이 대학에서도 이뤄질 수 있게 되어 제품담배의 품질관리 및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담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향후 기대되는 바가 크다.



◎ 교육부 2003년 지방대학육성사업 1위로 선정



우리대학이 7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3년도 교육부지방대학육성사업 지원대상 중부권 국·공립대학교 중 1위로 최종 선정되어 금년 7월 중에 20억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지방대학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서 추진하는 우수사업을 교육부에서 평가



모교소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26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500억 규모이며,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학은 5~20억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번에 1차 서면심사에 50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2차 현장평가 결과 충북대를 포함해 최종39개 대학이 선정된 것이다.

우리대학은 중점육성분야인 BT를 중심으로 하여 중부권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지식기반 정보개발센터(BKIDC)」설립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였다.

◎ 수의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

모교 수의과대학 졸업예정자 28명은 1월 8일 실시된 제48회 수의사국가고시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응시자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응시생 100% 합격율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전국순위 10등 이내에도 모교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되었다.

◎ 2003년도 2주기 사범대학 평가 『연장방문평가』 실시



2003년도 2주기 사범대학 평가에 따른 우리 대학의 「현장방문평가」가 지난 11월 24일(월)에 실시되었다.

이번 현장방문평가는 지난 9월 29일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한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자체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3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파견되어 사범대학평가의 제1영역 : 교과과정 및 수업영역, 제2영역 : 교수 및 학생영역, 제3영역 :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영역에 걸친 제반사항을 평가하였다.

현장방문평가단은 평가를 마친 후, 당일 오후 4시부터 한시간여 동안 본부 5층 회의실에서 대학원장, 학생입학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사범대학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대학의 현장방문평가에 대한 강평회를 가졌다. 이날 강평회에서는 신재철 평가단장(전남대학교 교수)의 종합소견 발표에 이어 각 영역별 담당 위원들로부터 소감과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2003년도 2주기 사범대학 평가의 평가결과 종합 심사 및 등급 판정의 공표는 추후에 있을 예정이다.

◎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 2003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연구과제 선정



우리대학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가 2002년 4월에 위암 억제 유전자 RUNX3의 기능을 규명한 데 이어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003년도 창의적연구진흥사업에 암 억제

유전자 기능 연구단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과학자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핵심·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대학교에서는 배석철 교수가 최초 선정된 것이다.

사업기간은 9년(2003년~2012년)으로 매 3년마다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평가를 통하여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소 3년간은 9억원의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형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사업 선정은 1·2차 평가를 통하여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암 억제 유전자 기능 연구단 등 6개 연구단이 선정되었다.

◎ 제2캠퍼스 부지, 총14만 858명 매입 완료

- 예산부족 문제로 캠퍼스 건물 설립은 5~10년 후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예산확보 필요 -

우리대학은 오창캠퍼스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을 지난 7월 10일 완료했다. 이날 우리대학은 8만 1천평의 부지를 한국토지공로부터 매입하고 이에 대한 토지비용은 5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이로



써 지난해 10월 모충동과 사창동 등 학외의 학교부지와 교환한 5만 평과 같은 달 매입한 9천 평까지, 오창에 있는 학교용지의 매입면적은 총 14만 858평이다.

오창캠퍼스 계획은 1994년 2월에 수립해, 1995년 5월 오창 첨단과학기술대학(가칭) 설립 연구보고서를 처음 발표했다. 이후 예산 부족으로 미뤄져 오다

1997년 6월 발표된 우리학교 4차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2캠퍼스 설립 계획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오창캠퍼스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해 3월 6일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그 추진계획은 본격화됐다.

오창캠퍼스 부지 매입을 위해 소요되는 예상액은 5년간의 분할상환금을 포함해 총 155억 2,818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지원금과 학교의 예산, 그리고 학교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했지만 건물 시설 설립 등은 예산이 부족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해, 현재 확보한 캠퍼스 부지는 구획 정리가 전혀 돼있지 않아 부지 매입을 비롯한 상·하수도 건설과 건물시설비도 우리학교에서 총당해야 한다.

지난 해 오창캠퍼스 설립기본계획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황재훈(도시공학과) 교수는 "국립대학예산의 70~80%가 국고지원이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우리 학교 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만 예산을 책정하는 데는 우리가 따른다"며 "이에 따라 캠퍼스 설립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구성원의 합의와 함께 교육부 정책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캠퍼스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과 이상태 계장은 "오창캠퍼스에 대한 구상 계획은 개신캠퍼스의 협소함을 해소하고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집중육성, 산학협동의 발전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했다"며 "예산문제로 인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준비중이고 정부의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10년 정도의 기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창캠퍼스 계획 초기부터 참여해온 황희연(도시공학과) 교수는 "오창에 설립하는 캠퍼스는 개신캠퍼스와는 다른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산업체와의 연계를 즐기며 e-비즈니스, 나노기술, 디자인 공학 등 새로운 학과 개설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지는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기숙사와 교수아파트부터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교육시설 건설은 예산 때문에 향후 5년 정도의 기한이 걸릴 것 같

◎ 수학, 토목공학분야 『우수대학』 인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02년도에 실시된 학문분야 평가에서 우리대학의 수학, 토목공학분야를 우수대학으로 인정하였다. 대교협의 학문분야 평가는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 학생,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교육성과 영역에 대해 평가하여 종합 및 영역별 인정여부와 우수, 최우수 대학을 확정 발표한다. 종합결과 우리대학의 수학과는 학부에서 우수, 토목공학과는 학부 및 대학원에서 우수로 인정을 받았으며, 영역별 인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평가분야	학 부		대학원	
	최우수	우 수	최우수	우 수
수 학	학생/교육성과 영역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		· 학생/교육성과 영역 ·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
토목공학	· 학생/교육성과 영역 ·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	교육목표·교육과정 및 수업영역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	· 교수 영역 · 학생/교육성과 영역



다"고 말했다.

한편, 2캠퍼스로의 단과대학 이동 문제에 대해 황재훈 교수는 "IT관련 사업이 오창지역의 중심사업이지만 관련대학의 이전은 진지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조직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국립대학교 2캠퍼스는 현재 부산대가 추진하고 있으며 의대와 치대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과학대학 이전을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또한 우리학교는 의대 캠퍼스가 따로 있는 충남대를 제외하고 전국 국·공립 대학 중 2번째로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다.

인문대학 이용조 교수 “세계 최고 볍씨는 한국 소로리 볍씨”

World's 'oldest' rice found 의 제목(2003. 10. 22)으로 영국 BBC인터넷에 소로리 볍씨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국내·외에서 많은 발표가 이루어진 후 뒤늦게 기사화되어 다시금 “세계 최고의 볍씨”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충청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우리대학 박물관에서는 문화유적조사로 지표조사(1994)·시굴조사(1996~97)를 거쳐, 본격적인 학술조사(1997.3.11, 17~98.4.15)를 통해 그 연구성과를 『淸原 小魯里 舊石器 遺蹟』(2000년, 국배판 613쪽)으로 학계에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소로리 I 지구 토탄 2지역에서 위(14,820·13,010년 전)·아래 토탄층(17,310년 전)에서 볍씨가 출토되어, 이 교수는 이 볍씨들과 토탄층에 대한 내용을 『제4회 비 유전학 국제회의』(필리핀 라스바뇨스 국제미작연구소, 1999. 10. 22~27)에서 발표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소로리 볍씨는 이 회의에 참가한 중국·일본·미국·인도 등의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여기에서 박태식 박사(경북농작물시험장)의 소지경 분석에 따르면 소로리 볍씨는 야생벼의 특징과는 다르게 오히려 인위적인 외부요인에 인하여 소지경이 모두 잘리어진 것으로 보아서 재배벼(cultivated rice) 이전 단계인 순화벼(domesticated rice)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 벼는 소로리 A지구에서 많이 출토되어 큰 특징을 이루는 흉남 연모로 잘리어졌을 것으로 보았고, N. Kononenko 교수(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연구소)의 현미경 관찰로 섬유질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소개와 발표는 소로리 B·C지구의 36,500년 이전의 연대가 밝혀진 토탄층에 대한 정밀 분석도 앞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 유적에 대한 싹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인들의 깊은 관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소로리 유적이 위치한곳은 이미 일본의 꽃가루 분석의 제1차자인 야스다 박사의 분석에도 중국학자들이 발굴한 감서성(仙人洞, 10,500년 전)·호남성 옥섬암(11,000년 전)의 유적들이 분포한 기후대에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청원군의 예산지원으로 2002년 12월에 “아시아의 선사농경과 소로리 볍씨”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일본의 학자들에게 지질·식생·곤충의 화석환경 등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소로리 볍씨의 기존 해석과 보다 진전된 성과를 각인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6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고고학대회에서 “수양개와 그 이웃들”이라는 독립분과에서 소로리 볍씨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세계의 많은 학자들에게 농경의 전파와 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영국의 BBC에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 이 교수의 연구를 인정해준 것이다.

소로리 유적은 최고의 볍씨가 발굴되었던 유적으로 앞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발굴을 통하여 벼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인간 행위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문, 입구, 상징, 홍보 등 역할 해야

■ 대학과 사회의 구분, 상징성 부각시켜야...우리학교 문, 정확한 명칭도 없어

학교 문의 기능은 단순히 통행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문은 들어 서면서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하고 학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학교의 문은 어떠한가? 우리학교 문에는 정확한 구분과 명칭조차 없다. 이에 우리학교 문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자.

■ 우리학교 문의 현주소

우리학교의 문은 모두 7개로 정문, 동문, 남문, 04동 앞의 문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주차요금 정산소가 설치돼 있다. 중문 후문, 어린이집 앞의 문은 보행자가 이용하도록 돼 있다.

정문은 말 그대로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경계만 표시하고 있을 뿐이며 그조차 명확하지 않다. 정문 앞 도로는 오거리로 항상 통행차량이 많아 번잡하고 좁은 도로로 기능성, 상징성이 부족하다. 정문에 있는 무료주차장은 이런 번잡함을 더하고 있다. 또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학교 이미지에도 부족하다.

동문은 병원쪽에 위치한 동문 또한 통행차량이 많으며 병원입구와 이어져 있어 혼잡하다. 게다가 동문은 사회와 학

교 사이의 경계라 할 수 있는 문이 없어 주차요금 정산소가 학교 안팎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문과 병원 입구의 주차장은 정비가 돼 있지 않아 통행하는 이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학교 방문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없다.

남문은 학연산 옆에 위치하고 있다. 수의과 대학은 남문을 통해 가도록 돼 있지만 인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

중문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중문의 경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게다가 학교를 벗어나자마자 상업지역 이어서 학교와 상업지역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문이라 부를 수 있는 건축물이 없다.

후문은 주위의 경관이 나무와 잘 어우러져 있어 통행자가 많은 문이다. 하지만 출입구가 계단으로 돼있고 경사가 있어 자전거 통행에 문제점이 있고 가로등의 부족으로 야간통행에 안전 문제가 있다. 또한 입구에 사범대 방향으로 바다

에 자갈과 모래가 깔려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

어린이집 앞 문은 후문과 가까이 있지만 중문과도 가까워 이용자가 많다. 하지만 출입구가 좁고 부차된 광고물들로 후문역시 쾌적한 환경은 아니다.

04동 앞 문은 주차요금 정산소를 지나 는 순간 주택가라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동아리방 앞쪽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는 학생이나 주민들이다. 이 문은 도로간격이 좁아 차량통행과 안전의 문제가 있다.



이렇듯 우리 학교 문은 도로와의 연관성, 기능, 상징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충남대의 경우 정문이 큰대 자를 상징하고 있으며 멀리서 보면 펜촉과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이것은 학문의 노력과 열정, 학문의 전당임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몇 대학에서는 교육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정문을 다시 짓는 일도 시도하고 있다.

■ 앞으로의 개선 방향

우리학교 진출입개선 계획을 보면, 정문주변의 인공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소규모 포켓공원이나 썸지공원 등을

조성해 시각적 특이성 극대화, 주차공간 확보, 우리학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구성할 계획이다.

동문의 경우 가로수길의 이미지로 병원입구와 분리되도록 하며 보도를 따라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 공공예술 전시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상업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상업적 기능의 문을 계획하는 것보다 학교의 정보, 홍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가로수 길을 재현해 청주와 충북대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접목할 예정이다. 또한 무료 주차공간을 확대해 학연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문은 보행자가 많은 특징을 살려 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중이며 상업공간과 학교를 구분할 수 있는 상징탑을 구성하고 있다.

후문은 자전거이용로 설치, 보행거리 조성, 가로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04동 앞 문은 주변의 무료주차장을 정비하고 보행공간과 휴식공간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행량 분석을 통해 이용자와 주변주민의 의견수렴, 협조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정산소 폐쇄가 가능하다.

우리학교의 문의 경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정문의 경우 도로 확장,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를 인식하고 우리 학교문에 기능, 상징성을 부여하고 시각적 이미지와 안전을 고려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문단상

영혼을 지키는 사람의 아름다움

요즘 들어 나는 내가 시와 함께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세상 크게 감사한다. 몸은 물론 영혼까지 시장에 내다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위협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나 자신을, 아니 나의 영혼을 내다 팔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며 그들이 내놓는 작품이 시이기 때문이다. 여기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어 가는 한 시인의 작품을 소개하며 그와 내가 가상으로 나는 대화를 적어본다.



정효구

· 국어교육 (77학번)
· 국어국문학과 교수

내 시는 은현리 산골에 별을 보러 가는 천문학교가 있다. 은현리 천문학교에서 나는 별만 담임선생님, 가난한 우리 반 교실에는 천체망원경이나 천리경은 없다. 그러나 어두워지기 전부터 칠판을 깨끗이 닦아놓는 착한 하늘이 있고, 일찍 등교해서 교실 유리창을 닦는 예쁜 초저녁별이 있다. 덜컹덜컹 은하열차를 타고 제 별자리를 찾아오는 북두칠성 같은 덩치 큰 별들이 있고 먼 광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느라 숨을 헐떡이는 별도 있다.

오래 전 나도 별과 같은 학생이었다. 그 때의 우리들처럼 별들도 여간 말썽꾸러기가 아니다. 내가 출석을 부르는 사이 슬쩍 자리를 비꾸어 앉는 개구쟁이별이 있고, 시간시간 붉은 옷 노란 옷으로 같이입는 멋쟁이별도 있다. 그러나 은현리 천문학교에서는 누구도 별을 올려서는 안 된다. 별이 올라버리면 하늘 제자리에 손뼉자국 같은 생체기를 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오래, 아주 오래 별을 바라본 사람은 알 것이다. 가령 침상대에 올라 별을 바라보았던 서라벌의 점성가들은 벌써 알고 있었을 비밀이다. 그 비밀을 말하자면, 모든 별들은 약기라는 것이다. 하늘의 눈물로 만들어진 하늘의 약기. 그래서 모든 별들은 썩그랑 썩그랑 수정유리 소리가 나고, 바람부는 날 은현리 천문학교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혹 당신이 듣지 못했다 해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믿지 않으면 별들의 연주를 영원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휘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가. 하얀 연미복을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열광적으로 연주하고 싶었다. 이제 그 꿈이 이뤄졌다. 베를린 필하모니를 지휘했던 카리안 선생도 나보다 가슴 뛰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작은 산골에서 지휘봉을 들고 밤하늘에 뿌려져 있는 별들의 소리를 조율한다. 나의 지휘로 은현리 별들이 서서히 합주를 시작하면 미리내는 장중하게 흘러가고 밤하늘은 음악에 젖는다.

별은 자신을 때리며 소리를 낸다. 별은 소리를 낼 때 가장 빛난다. 작은 별은 맑은 소리로 웃고 큰 별은 우렁찬 소리로 고함을 지른다. 물고기자리의 별들은 물고기가 되어 튀어 오르고 전갈자리의 별들은 전갈이 되어 달아난다. 개구쟁이 녀석들이라 1악장이 끝나기도 전에 내 지휘 따위는 안중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편안하다. 연미복을 벗어 던지고 구두를 벗어 던지고 지휘봉을 던져버리고 풀밭에 눕는다.

하늘의 별들이 내게로 뛰어 내린다. 선생님하며 내 품으로 달려온다. 내가 바다가 보이는 교실의 선생님이었다 그 때처럼 내게로 달려와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천문학교 교실에서 한 몸이 되어 노래를 부른다. 별들이 모두 제 집으로 돌아간 새벽 나는 악보를 그린다. 아주 옛날 은현리에 살았던 우시신국* 사람들이 비위에 그 별자리를 새겼듯이 천상열차분야지도** 같은 황홀한 하늘의 합창을 잊어버릴까 내 마음의 천문도에 똑박똑박 그려 넣는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에 있었던 고대국가/ ** 우리 나라 옛 천문지도

- 정일근의 「은현리 天文學校」(『열린시학』, 2003년 여름호)

*정효구 : 〈銀峴里〉라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셨다고요?

*정일근 : 벌써 소문이 났군요.

*정효구 : 직장을 그만두고 은현리의 〈마당〉으로 〈출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일근 : 제 시집 『마당으로 출근하는 시인』(문학사상사, 2003)을 보셨군요.

*정효구 : 〈마당〉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마당〉은 물질로서의 마당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마당이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는 물질로서의 마당도, 영혼의 마당도 갖지 못한 채 아주 〈위험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위험한 삶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일근 : 위험한 삶의 끝자리에서 제가 찾은 것이 바로 〈銀峴里〉의 〈마당〉입니다.

*정효구 : 〈銀峴里 마당〉은 그 이름이 아주 시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정일근 : 저에게 은현리의 마당은 치유의 장소이자 창조적 장소입니다. 그 마당에서 저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효구 : 선생님의 시 「은현리 天文學校」를 읽은 지난해 여름, 가슴이 〈박차서〉 한 동안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서성였습니다. 은현리에서 선생님이 이끌어 가시는 천문학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였습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아름다운 학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 선생님의 시 「은현리 天文學校」를 읽어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정일근 : 은현리 산골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학교는 〈천문학교〉입니다. 저는 그 학교의 〈별반〉 담임 선생님입니다.

*정효구 : 〈별〉이라는 말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시적〉인 말입니다. 시쓰기란 그 〈별〉의 세계를 우러르는 일이지요. 아니,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시쓰기란 그 〈별〉의 세계를 이 세상에 창조하는 일이지요.

*정일근 : 은현리의 천문학교는 〈가난〉합니다. 이 학교엔 아무런 〈도구〉도 없습니다.

*정효구 : 은현리의 천문학교는 〈가난〉하기 때문에 〈운명〉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진정 가난한 사람만이 별을 우러르고, 별을 찾아내고, 별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현리 천문학교가 가난한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현리 천문학교엔 아무런 〈도구〉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은 아주 시사적입니다. 저는 아무런 〈도구〉도 없다는 은현리 천문학교를 떠올리며, 일체의 〈도구적 성격〉이 사라진 〈존재하는 세계〉를 상상합니다. 〈도구〉와 〈도구적 성격〉이 지배하는 날부터 우리는 소외의 지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정일근 : 저는 은현리 천문학교에서 별들이 올라버릴까 봐 그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말썽꾸러기입니다만…….

*정효구 : 〈야단〉치는 선생님은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야단쳐서 울게 만들면, 그들은 〈제빛〉을 발하지 못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야단〉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도대체 〈제빛〉을 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모두들 〈왜곡〉돼 있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검검한〉 얼굴입니다. 〈제빛〉을 내는 사람들의 학교가 그림습니다. 〈제빛〉을 내게 하는 선생님들이 그림습니다.

*정일근 : 은현리 천문학교의 별반 담임 선생님 노트를 하

다보니 모든 별들이 〈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효구 : 공감입니다. 별들뿐만 아니라 이 우주 속의 모든 진정한 존재는 〈무관약기〉처럼 약기가 없어도 노래를 연주하지요. 그런 연주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우주적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무기〉만 있고 〈약기〉가 없는 세속사회입니다. 시를 쓰는 일이란 〈무기〉가 가득한 세상에 〈약기〉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약기〉에 대한 그리움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은현리 천문학교는 〈무기〉를 얼씬도 못하게 하는 〈꿈의 나라〉처럼 생각합니다.

*정일근 : 저는 은현리 밤하늘의 별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라는 말이 조금 권위적인 느낌을 줍니다만…….

*정효구 : 진정한 지휘자는 높은 단상에 있지 않고 연주자들 속에 〈들어가〉 있지요. 그럼으로써 연주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섬세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내는 다양한 소리를 통합시킬 수 있지요. 저는 지휘자의 지휘봉을 바라보며 수많은 연주자들이 〈화음〉을 창조해낼 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화음〉 앞에서 저는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선생님은 별들의 소리를 조율하며 〈화음〉의 세계를 밤하늘에 풀어놓는 사람입니다. 〈화음〉의 세계로 가득한 〈밤하늘〉을 상상한다는 것은 황홀한 일입니다.

*정일근 : 제가 지휘자로 나섰으나, 실제로 은현리 천문학교 〈별반〉의 연주회에는 지휘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의 〈제소리〉를 내며 그 자체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냥 〈연미복을 벗어 던지고 구두를 벗어 던지고 지휘봉을 던져버리고 풀밭에〉 누워버리면 됩니다.

*정효구 : 신비롭습니다. 이 우주 속의 모든 존재가 진정 〈제소리〉를 낸다면 그들이 서로 어울려 〈화음〉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문제는 〈제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리는 〈왜곡〉돼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소리〉를 상실했습니다. 시가 내는 목소리가 〈제소리〉에 가까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시를 읽고 감동한다는 것은 그 〈제소리〉를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일까요?

*정일근 : 제가 지휘봉을 집어던지고 풀밭에 누워 있으면 하늘의 별들이 제 〈품〉으로 달려듭니다. 저는 그들을 〈품〉에 안고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정효구 : 〈품〉이라는 말 앞에서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를 받아들일 〈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품〉 안으로 아무도 뛰어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품은 너무나 차갑고 얇아서 누구도 우리의 품 안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품 안에서 어떤 존재도 〈부화〉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품안으로 별들이 뛰어 들고, 그 별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고 〈함께〉 새벽까지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언제, 다른 존재를 이렇게 품어 안고 새벽이 올 때까지 노래를 불러 볼 수 있을까요?

*정일근 : 새벽이면 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과 불렀던 황홀한 〈합창〉을 잊어버릴까봐 얼른 제 마음의 〈천문도〉에 그 악보를 그려 넣습니다.

*정효구 : 그렇게 그려 넣은 〈악보〉가 선생님의 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밤 연주된 합창의 〈악보〉는 모두 다 르겠지요. 그 많은 악보가 선생님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선생님은 명실공히 〈악보의 창고〉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무엇을 저장한 창고일까요? 이렇게 쓰고 나니, 제 몸을 들여다보는 일이 두렵군요. 제 몸이라는 창고야말로 온갖 흉악한 것들로 가득할 터이니가요.

*정일근 : 은현리에 한 번 놀러오세요.

*정효구 : 이미 선생님의 〈銀峴里〉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제 마음속에 들어 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사는 일이 영합되어지면 〈은현리, 은현리, 은현리……〉하면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품네〉를 떠올려볼 것입니다.

개신상공인회 10년을 되돌아보며...



송재용

·경영(81학번)
·(주)신일대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 현대생활의 10년은 강산은 물론 생활의 양태, 삶의 패러다임까지 변하게 하는 것 같다.

개신상공인회가 창립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처음 사업하는 동문 몇몇이 지역사회 모교에 뜻있는 일을 해 보고자 소박하게 뜻을 모은 것이 10년전 어느 새 세월은 이리도 빨리 흘러 선배 회원들의 머리에는 반백의 서리가 내려 앉는가 하면 창립당시의 막내이었던 회원이 학부형이 되어 나타나곤 한다.

처음 모임을 만들 때 고민도 많았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외부에 비추어지는 눈도 많이 의식했다. 자칫 어떠한 이익단체로 보일까, 아니면 모교의 후원을

빙자한 이권사업을 추구하는 단체로 보일까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회원 개개인의 처신을 바르게 하자고 서로의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모임의 목표가 정해졌다. 먼저 1억원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기본수입원으로 하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큰 테두리는 정해졌다.

창립 후 정말 알뜰하게 기금을 모았다. 자칫 술자리로 이어지는 저녁모임은 되도록 피하고 새벽산행 또는 칼국수 모임으로 끝내기도 하며 몽쳤다. 때로는 특별모임자리에서 폭탄주를 돌려가며 특별성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모임이 이어질수록 회원간의 결속력은 더욱 두터워져 매월 하는 월례회 참석율이 80%선을 상회하는 우수한 모임이 되었으며 나름대로 회의운영도 재미있고 다양하게 하였다. 가족동반을 하는 야유회, 송년회, 회원들끼리 1년 한해간 쌓인 이야기도 나누고 정답어린 대화도 나누는 1박 2일의 산행 등 총동문회체육대회도 참석하여 줄다리기의 만년 우승 등 회원수는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알차고 훌륭한 모임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모임이 성장하는 동안 가슴아픈 일도 많았다. 그간 뜻을 합쳐 만났던 많은 동료회원들이 지금은 같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외환 위기를 맞아 도산 또는 개인사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뜻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가슴아프다.

이러한 기쁨, 고난, 역경속에서 본회는 꾸준히 성장하여 마침내 새천년이 열리는 2000년 우리의 꿈에 그리던 목표인 장학기금 1억이 달성되었다. 마침 개인적으로 필자가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첫 장학생을 선발, 지급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참으로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이미 모임을 떠난 회원에 대한 미안함이 앞서기도 하였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혼자만 거두는 느낌이었다.

이모든 결과가 창립시부터 고생한 선·후배 동료회원 모두의 노력덕이라 생각하며 장학생 선발에 들어갔다.

일단 장학생선발은 학교측에 맡기지 않고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으로 공모하기로 하였으며 선발기준은 성적보다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가정형편을 우선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서였다. 이 때문에 지원신청 서류 중 성적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각 단과대별로 고르게 배정하기로 기본원칙이 세워졌다.

이렇게 총 14명을 선정하여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총 45명이 접수하여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기본구비 서류인 자기소개서를 회원들과 밤을 새며 읽었다. 정말 모든 사연과 살아온 과정이 불혹의 나이에 든 선정회원들의 콧등을 찡하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사연이 많았다. 아직도 우리주위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구나 생각하며 조성된 장학기금이 부족함을 한탄하였다. 어렵게 14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지원자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며 회장명의로 사과서함과 도서상품권으로 인사에 대신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개신상공인회 첫장학금을 총동문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

다음날 지급대상자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라도 나누어보고 싶어 점심자리를 마련했다. 본회 운영위원 몇 명과 식당에서 자리를 가졌으나 이내 자리를 만든 것을 후회했다.

장학금지급대상자 일부는 수업이 있어 오지 못하고 참석 인원들의 얼굴이 별로 밝아보이지 못하였다. 일부학생은 불편한 몸들을 끌고 힘들게 자리에 참석하였다. 아차하는 마음에 뒤통수를 무엇인가에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우리의 선정기준이었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이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였겠는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셈이 된 것 같다.

남을 돕는 일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절실히 가슴에 와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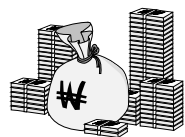
알량한 장학금을 핑계삼아 억지로 생색내고 치하를 받으려는 것 같아 먹는 밥알이 돌덩어리 씹는 기분이었음은 나의 과민한 반응이었을까. 아무튼 나는 이날 이후로 누구를 돕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치하를 받는 자리는 결코 가지 않게 되었다.

아무튼 자리를 허둥지둥 마치고 사람은 평생 배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첫 장학금 지급은 이렇게 끝나고 올해까지 4회 개신상공인회 장학생이 선발되었다.

이렇게 흘러온 세월이 벌써 10년 그간 새로운 회원도 많이 영입되고 하여 이제 회원수가 50명 정도의 중견 단체가 되었다.

한때 모 신문에서 개신골 386세대의 후배사랑이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이제는 486세대라고 하여야 할까?

비록 글자 앞숫자가 바뀌고 허리띠 구멍을 늘리고 머리칼이 한두올씩 얇어지고 시나브로 흰서리가 내리어도 우리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웃고 어울리며 나름대로의 모교발전과 우리회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회원들의 건승과 건강을 빌며 우리모임을 곁에서 지켜보시고 도와주신 많은 동문선배님들께도 다시 한번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세금절약가이드 ①



송창근

·국제경영(79학번)
·공인회계사, 중부매일 논설위원

1. 매출액신고 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등을 전산분석하여 과거5년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므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거래상대방이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유형 및 휴여부 조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외계산 → 「사업자과세유형 휴 · 폐업조회」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4.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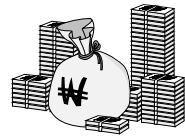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5.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

길입니다.

- 6.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 7. 가공세금계산서(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 큰 낭패 초래한다.
- 8. 6월말과 12월말의 대량매입! 세무조사 자초한다.



세금절약가이드 ②

1.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2003년 신고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두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3.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5.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신인도와 금융·세제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측면에서도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세율이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법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상식〉 연봉제에 관하여

1. 연봉제의 기본 개념

연봉제의 사전적 의미는 임금을 연단위로 책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연봉제의 개념은 기존의 근속년수에 비례해서 임금이 조정되는 연공주의 임금제도를 탈피하여 1년단위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행하고 통상 전년도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간 총액임금을 정한 뒤 이를 기업 사정에 따라 12, 13, 16회 등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도록 동일직종 동일직무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예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봉제의 핵심은 성과와 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임금에 연동시키는 것에 있으며, 결국 연봉제의 성패는 성과·능력의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일반 기업에서 잘못 알고 행하고 있는 연봉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봉제 관련문제

(1) 연봉제와 퇴직금

연봉제를 도입하면 퇴직금은 없어지는가?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이러한 문의가 많다. 하지만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규정은 연봉제라 하여도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동 규정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이용,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는 있다. 다만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①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② 퇴직금을 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2) 연봉제와 법정수당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는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이 있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한 연봉제하에서라도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의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연봉액의 결정시에도 동수당의 지급을 감안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시간외 근로, 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보다도 상회하여 연봉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에는 범위밖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시간외근로, 휴일, 야간근로를 산정하여 이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

연월차유급휴가는 본래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연월차유급근로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산정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휴가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한, 즉 포괄하여 산정해 놓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약정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연봉제라 하여 결국 지각시 해당일·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봉제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중시하는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연봉제하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지각·조퇴·결근 등 근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한 임금 공제의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연봉제와 근로계약의 종료

연봉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인가?

연봉제와 계약직은 동일하지 않다. 즉, 연봉제는 임금의 계산단위가 1년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이지만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봉제근로자는 1년의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년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도 연봉제로 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된다.

그런데, 비록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성기정

· 법학(83학번)

· 공인노무사

감기약 복용의 허와 실



이 명 구

·약학 (72학번)

·약학대 학장

해마다 환절기만 되면 공식처럼 감기환자가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에는特效약이 없다. 얼마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감기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암환자 등의 중병환자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많았다. 감기에特效약이 있다면 아마 엄청난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전체 감기환자 중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라이노바이러스를 비롯해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현재 약 200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감기 원인바이러스는 라이노바이러스를 비롯해 코로나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가 되고있는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의 원인균도 이들 바이러스의 일종인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졌다. 이같이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감기特效약인 항바이러스제나 예방약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감기약은 원인 바이러스보다는 감기로 약해진 면역체계를 통해 침투한 2차 감염 원인균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감기약은 감기원인균인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체계가 처리하도록 두고 2차 세균감염 등을 막거나, 증상을 완화함으로써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다. 증세가 가볍거나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 환자가 의사의 처방없이 스스로 또는 약사의 자문을 구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일반약물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약물들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보고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달된 것들 중 일반인으로서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도 있으나 일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콧물이나 비염의 증상에 흔히 사용되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제제가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FDA에서 발표함에 따라, 식약청은 PPA 약물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복용 중인 사람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부작용은 빈도가 매우 낮다고 해도 심각하고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PPA 함유약품의 사용중지 권고와 함께 OTC 부적합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약물은 콧물약 뿐만 아니라 식욕억제제에도 함유된 경우가 있는데, PPA함유 감기약을 먹은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배, PPA함유 식욕억제제를 먹은 여성은 무려 16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PA는 단일제제로는 최대 75mg, 복합제제에 25mg 정도 함유되어 있다. 국내에는 전문의약품으로 16품목(12품목 식욕억제제), 일반의약품으로는 198품목이 비출혈 제거제로서 허가 받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코감기약으로 널리 사용되는 콘택600캡셀의 경우 문제가 된 PPA를 40mg 함유하는 반면, 미국 스미스클라인 비참社가 판매중인 12시간 지속형 콘택캡셀이나 캐플릿정은 75mg, 일본의 스미토모제약의 12시간 지속형 콘택600S캡셀이나 서방형 콘택SR캡셀이 45mg, 영국 스미스클라인 비참社의 콘택400캡셀은 50mg의 PPA가 들어있어 모두가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함유량이 많다.

그러나, 미국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던 환자의 대부분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PPA가 대량 함유된 식욕억제약을 장기간 사용한 사례였으며, 일부 함량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기약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용량이 들어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에 일부 판매중지가 성급한 조치이지 않으나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PPA 함유제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PPA는 당뇨, 녹내장,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는 의사나 약사에게 자신의 질환을 알리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종합감기약은 대부분의 경우 콧물과 재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chlorpheniramine 등), 기침 가래에 작용하는 약물(doperastine, methylephedrine 혹은 dextromethorphan 등), 그리고 진통해열제로 아세트아미노펜(대표적 상품명: 타이레놀)이 일반적으로 들어있고, 여기에 항히스타민제에서 오는 부작용인 졸립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카페인, 또는 기타의 비타민 성분까지 함유하는 것이 있다. 많은 약제를 한꺼번에 복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성분간 상호작용, 마약류나 중추에 작용하는 기침약에 의한 약물 의존성 등이 종합감기약에 대해 대표적인 최근 거론되었던 문제점들이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론이나 일반적으로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함량은 처방에 의해 사용하는 약물의 양보다 적으므로 감기에 의한 제증상이 있을 때 종합감기약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처방약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중요한 점은 일반약이나 처방약이나 특정 약물에 의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복약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에페드린이 함유된 약물은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에페드린과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비염증상에 쓰이는 항콜린제가 함유된 스프레이 약물을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약제성 비염을 야기할 수 있으며, 코푸시럽 등에 들어있는 dextromethorphan은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감기약을 받으며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값싼 의료수가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마치 못해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에 의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절감차원에서라도 지면을 통해 또는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서 참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운영등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회비 납부자 명단(2003년도)

(2003. 4. 1 ~ 2004. 2월 현재)
※무명으로 입금하신 분이 5명 있습니다.

회장 회비 (500만원)	강신우(농학61)	이사 회비 (5만원)	목현실(회계82), 민소영(회계91), 유용철(회계91), 정상래(화공71) 이창근(화공78), 박태훈(화공81), 김덕래(화공83), 박종서(전기76) 안재형(전기77), 박상현(기계92), 김상필(토목70), 허 열(토목70) 원종환(토목71), 조종진(토목71), 윤석현(토목73), 민덕기(토목74) 허 백(토목74), 김학용(토목76), 류병로(토목77), 이준대(토목79) 유희열(토목81), 김숙환(재료77), 이태섭(재료78), 김문규(재료79) 김 진(건축79), 박우석(임학59), 오문식(농학54), 반우덕(농학55) 이평남(농학63), 목성규(농학64), 신주식(농학65), 민경범(농학72) 박재훈(농학75), 이종철(농학75), 이상태(연초77), 오상규(연초79) 우영구(연초82), 이진구(축산54), 권희정(축산55), 정광영(축산56) 이승순(축산61), 나기준(축산65), 남주우(축산67), 김종훈(축산72) 김신해(농화62), 김재정(농화62), 김은환(농화63), 윤인현(농화63) 조재민(농화65), 구광희(농화66), 황종택(농화73), 박창조(농화75) 이병화(농화77), 정현상(식품83), 이재현(농공62), 박기섭(농공63) 송재현(농공64), 정광희(농공79), 한충수(농기계78), 박종욱(농경73) 이재봉(농경75), 신동주(교육79), 이재철(국어72), 연순봉(국어72) 도종환(국어73), 이창희(국어74), 변상권(영어70), 김영남(영어72) 유포열(영어74), 김경배(영어74), 조인희(영어76), 윤하용(영어77) 김일환(영어77), 유승춘(영어79), 강창숙(지리81), 이규석(사교78) 이주형(사교79), 홍순규(수교71), 김광수(수교78), 이세희(과학70) 서영원(미술75), 김현준(체육63), 김관목(체육65), 주은종(체육69) 김현필(체육70), 정용각(체육73), 유재원(체육77), 송용선(체육78) 김희철(체육79), 노경숙(가정71), 조재순(가정72), 김학수(법학82) 성기정(법학83), 허재두(약학61), 장병길(약학62), 이명구(약학71) 조현범(법학83), 박용해(축산56), 조영래(전통84), 김홍규(임학62) 이재환(농경78), 김석남(농경81), 이충섭(체육75), 김상수(토목80) 임상화(약학70), 박봉화(교육대학원) 우종병(약학59), 정영구(체육72) 윤성호(체육79), 임충규(농경73), 윤상돈(건축87), 백기현(연초68) 김승환(국어74), 노정관(경영82), 유중현(수교88), 류종식(약학74) 한규량(사교76), 정대필(경영대학원), 오택근(경영대학원)
수석부회장 회비 (200만원)	김주섭(토목70)		
부회장 회비 (50만원)	정승근(농학62), 조항훈(가정64), 안영학(연초69), 김정환(농공69) 김용명(약학70), 유인호(영어70), 양재욱(약학70), 정만영(체육70) 박도희(수교71), 김홍식(국어72), 안재경(약학72), 김병수(체육73) 한창동(농학73), 변재경(체육75), 최창규(축산75), 이명원(토목76) 박경국(농경77), 김요식(화공78), 임병덕(역사78), 이왕영(원예78) 유운기(행정79), 윤진환(물리79), 조천희(토목79), 박종서(토목80) 김우성(법학81), 신민철(토목81), 최현호(법학81), 조성록(임학82) 장윤식(식품82), 최석근(토목82), 황재봉(농학82), 양태식(농경83) 안승덕(의학85), 김명녀(회계89), 유승원(체육75), 윤의상(재료77) 김동규(농기계78), 김상구(영문80), 안영현(불문81), 구관서(전기75) 연광석(대학원), 김종욱(교육대학원), 김성배(행정대학원) 김홍복(행정대학원), 임윤수(산업대학원), 송하식(경영대학원) 구천서(경영대학원), 전효재(경영대학원), 이명식(경영대학원)		
상임이사 회비 (20만원)	서장원(농학65), 손영철(과학71), 박노균(국어73), 강재원(미술75) 김기종(농경75), 윤기후(전기75), 김진상(토목79), 김길하(농생물79) 신은철(토목79), 이진국(화학80), 이종연(교육80), 박세종(토목81) 윤일로(토목81), 신현구(경제82), 박종진(체육83), 박흥진(수학83) 조삼현(수교83), 민현기(지리85), 손인석(경영90), 김수갑(법학80) 이봉희(화학72), 이용희(무역80), 이민선(농공80), 이풍희(산업대학원) 한태수(경영대학원), 윤기만(경영대학원), 이완수(경영대학원) 신연희(경영대학원), 박종천(경영대학원)		
이사 회비 (5만원)	배득렬(중문81), 박명구(중문82), 김은교(중문82), 김영희(영문80) 강남길(영문84), 이태문(영문83), 주병호(독문83), 최도규(독문85) 조만동(사학83), 지용수(사학88), 반재홍(행정78), 최영출(행정78) 김상해(행정80), 박순진(행정82), 조진영(정외84), 임헌준(정외85) 서래원(물리89), 김상인(화학79), 경기열(화학80), 유경희(생물79) 박용만(생물79), 최호기(경영78), 이법우(경영84), 조성근(경영86)		
		년회비(2만원)	이규문(체육60), 이인선(약56), 유주형(농경73)
		평생회비	박명구(중문82), 이종희(임학81), 박영호(법학85), 박정의(임학64), 라승용(농학59), 박상찬(화공75), 김경배(영어74), 서병각(농학59)20만원

>>> 사범대학 장학금 출연자 명단 <<<

전공학과	소 속	성 명	기탁액(금액)	전공학과	소 속	성 명	기탁액(금액)	전공학과	소 속	성 명	기탁액(금액)
교육학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이법용	300,000	지리교육과	부설중학교	강창숙	100,000	과학교육과	가경중학교	이양로	500,000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이종연	1,000,000		부설고등학교	남치규	30,000		도교육청 장학관	손영철	1,000,000
국어교육과	예성여자중학교 교장	김홍식	500,000		별방중학교	서주선	50,000		용암중학교	송호식	500,000
	부설중학교	김봉수	300,000		부설고등학교	이은진	50,000		중원중학교 교감	윤석성	500,000
	음성여자중학교 교감	김동욱	500,000	미원중학교	이충현	50,000	부강공업고등학교		최문수	5,000,000	
	부설중학교	김연수	100,000	사인교육과	부설중학교	김태준	50,000		부설중학교	김광일	100,000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진식	1,000,000		괴산고등학교	이영희	30,000		증평중학교	이구호	2,000,000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박노균	5,000,000		부설중학교	이영희	30,000		충북대학교 사범대 교수	권효식	2,000,000
	부설고등학교	박영철	100,000		부설고등학교	이재숙	30,000		청주여자중학교	유영희	500,000
	부설고등학교	이창희	200,000	부설고등학교	이규석	50,000	부설중학교		서광복	100,000	
	교원대 부설고등학교	이근하	30,000	부설고등학교	윤영희	30,000	양지고등학교 교장		유준형	1,000,000	
	교원대 부설고등학교	권오창	100,000	국민윤리 교육과	부설중학교	장호창	30,000		부설중학교	김태구	50,000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박세승	1,000,000		부설중학교	서우식	100,000	(전)의림여자중학교	박혜순	10,000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승환	2,000,000		부설고등학교	채상병	30,000	부설고등학교	서정환	50,000	
부설중학교	홍은표	50,000	수학교육과		부설중학교	최재상	300,000	증평여자중학교	윤교현	600,000	
교원대 부설고등학교	김광진	50,000		보은중학교 교감	한동환	1,000,000	강원대학교고등학교	이종범	100,000		
부설고등학교	오원규	30,000		한국교원대부설고 교감	조성준	500,000	부설고등학교	송해선	30,000		
교원대 부설고등학교	임미자	50,000		별방중학교 교감	변덕수	500,000	부설중학교	김인권	30,000		
부설중학교	남진숙	30,000		부설고등학교	양창복	100,000	부설고등학교	김학만	30,000		
부설중학교	조병태	100,000		황간고등학교 교장	이근청	1,000,000	부설고등학교	정한진	30,000		
영어교육과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유인호		1,000,000	교원대 부설고등학교	오대영	50,000	단양별 방중학교	김동영	50,000	
	부설고등학교	강상무		300,000	교원대 부설고등학교	박성훈	30,000	단양중학교 교감	박노진	1,000,000	
	교원대 부설고등학교	정태호		50,000	부설중학교	박태민	100,000	음성중학교	정관숙	50,000	
	부설중학교	박인희		100,000	교원대 부설고등학교	박종렬	50,000	음성중학교	최종식	400,000	
	부설중학교	김근간		30,000	교원대 부설고등학교	박종렬	50,000	진천고등학교	김종미	1,000,000	
	증평공업고등학교	이정욱		360,000	부설고등학교	이민재	30,000	충북대학교고등학교	미숙찬	500,000	
	부설고등학교	이형기	30,000	부설고등학교	신종진	100,000	미술교육학과	부설중학교	정진기	30,000	
	부설중학교	김학영	30,000	부설중학교	엄경숙	100,000		미원중학교	백정현	50,000	
	부설중학교	오창백	30,000	광주동중학교	정태호	50,000	체육교육학과	부설중학교	김기화	100,000	
	부설고등학교	박종완	50,000	충북대학교 사범대 교수	조원영	1,200,000		가정교육학과	부설중학교 교장	조항훈	1,000,000
미원중학교	박영숙	30,000	부설중학교	신해인	30,000	부설중학교			정경희	30,000	
부설고등학교	이광희	30,000	부설고등학교	오남진	30,000	부설중학교	함정숙		100,000		
역사교육과	부설고등학교	김창근	30,000	부설고등학교	백상철	30,000	교육대학원	2003.2 졸업생 일동	1,500,000		
				미원중학교	정보나	30,000		2004. 2 환경교육전공(4명일동)	500,000		
				교원대 부설고등학교	이형구	30,000					

단체 및 지회 동문회현황

● 학과 동문회 현황

(2004. 1월 현재)

구분	직책	성명	학번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국어국문학과	회장	김희식	81	사직동 888 흥덕문화의집 관장	274-7500	011-463-2202
	총무	최병철	92	조교	261-2090	
영어영문학과	회장	하재진	81	울림동 898 집현전학원장	212-2053	011-9847-8779
	총무	김진균	86	개신동 삼익 A 106-705호	268-9395	011-466-2212
중어중문학과	회장	김은교	82	북대동 현대오피스 205-604호	235-1483	011-461-4114
	총무	정선희	98	조교	261-2102	
철학과	회장	우환식	82	인문대학 인문학연구소	261-2169	018-325-5551
	총무	정미영	96	조교	261-2147	
사학과	회장					
	총무	전일련	93		261-2156	
고고미술사학	회장	박윤진	88	천안대흥동10-4주택은행 천안지점	554-7712	
	총무	유은진	95	조교	261-2163	
독어독문학과	회장	최도규	85	충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261-2133	016-9552-2133
	총무	이정은	97	조교	261-2131	
불어불문학과	회장	이윤혁	80	공주영성정보대학영성편집과교수	850-9160	011-484-9166
	총무	국신혜	98	조교	261-2139	
노어노문학과	회장	신성희	94	논현동기-22건설화관15층 UDS(주)		017-433-1816
	총무	김명숙	96	조교	261-2383	
미술과	회장	강병완	77	수동 399 대성고등학교	253-7422	011-461-9166
	총무	곽권영	83	개신동 278-34 객관영미술학원	275-7546	016-463-7540
사회학과	회장	유병구	85	대전대구29동24번지 원평동(하)소계내지점	042624-6544	019-445-7760
	총무	이수진	92	조교	261-2180	
심리학과	회장	박은서	82	울림동 1551 스튜디오 예가	217-1700	018-452-5214
	총무	이수미	90	조교	261-2188	
행정학과	회장	김경태	79	봉명동1047(주)덕수개발	272-0641	011-9847-0642
	총무	민병서	83	울림동743한국통신 고차사점스파	211-0200	016-456-8405
경제학과	회장	박병화	79	모충동 498 삼대당약국	275-2233	011-486-2233
	총무	김홍구	82	주성대학 금융정보과 교수	210-8273	017-408-0822
정치외교학과	회장	조영기	82	용암동 1506번지 신로왕족발	294-6400	019-420-6401
	총무	김태석	87	수곡동 44-1번지 충북지업사	286-8411	011-468-6164
체육학과	회장	유무웅	61	사직1동 808 체육고등학교장	275-0433	011-465-2942
	총무	김진균	84	북대동 869 청주고등학교	269-1235	011-468-4576
수학과	회장	박출찬	83	청주사직동 237-2대영D(주)시그리텔기술	273-8388	011-492-6709
	총무	이수연	99	조교	261-2240	
물리학과	회장	이승화	79	충주대학교 BK사업단 교수	841-5462	011-498-4536
	총무	전정현	82	문희동109-2 청송종합금융	223-9000	
화학과	회장	이건국	80	서천구동1422-7(주)코리아나화장품	580-8411	017-233-0639
	총무	유영란	98	조교	261-2279	
생물학과	회장	정현덕	81	충주시 목행동 동산A 103-905	853-9469	
	총무	노재균	83	수원 농촌진흥청농업생명연구소 유전자체중학과	299-1693	
미생물학과	회장	김선관	85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37		
	총무	반오현	89	송정동 70-38 일동제약 주미생물팀	267-7631	011-449-7998
천문우주학과	회장	김만웅	88	평택시 모곡동 430-8(주)유니원전자	668-3334	018-412-8800
	총무	최석선	93	조교	261-2312	
컴퓨터과학과	회장	이상철	84	서울 강남구 역삼동731 조흥은행	557-2000	
	총무	황명구	85	대전중구부사동155-7(주)이초이)티	222-1082	017-403-4321
지구환경과학과	회장			미결성		
	총무	우주환	95	조교	261-3136	
생화학과	회장			미결성		
	총무	정태희	87	조교	261-2306	
통계학과	회장	노은환	88	석교동 82-3 신동한우축산물	256-1558	
	총무	장영미	95	조교	261-2255	
경영학과	회장	이대희	81	영운동 174-2 대창농산	221-5988	016-462-3955
	총무	전충식	84	산남동 218-1 대우자동차		011-482-4410
국제경영학과	회장	지용호	81	분평동13650주빌딩(충해법수학교실)	298-3377	011-381-3598
	총무	홍석만	84	가경동 진로0파트 103-202호	234-4875	011-9844-4875
회계학과	회장	김동승	80	봉명동 1820(주)하림 대표	276-1297	011-9845-1297
	총무	김영준	88	사창동 231-20	276-8620	
경영정보학과	회장	이현철	89	원구동108동709-3008(하)충북농업기술원주요부		019-420-3329
	총무	우재경	98	조교	261-2355	
화학공학과	회장	곽광수	68	충주대학교 공업화학과 교수	841-5229	016-468-5229
	총무	서갑식	94	조교	261-2370	
전기공학과	회장	박찬서	75	가경동 764 대림0파트102-303	232-6366	011-9074-6366
	총무	김성수	79	모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교수	261-2421	016-9577-2266

구분	직책	성명	학번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토목공학과	회장	김주섭	70	내덕1동 772-10(주)기화건설	223-6161	011-461-3005
	사무국장	윤일로	81	상주대학교 토목과 교수	530-5257	011-9809-8733
기계공학과	사무차장	박재성	90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동문회	262-3900	
	회장	안치돈	81	영동 79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253-0532	011-462-8937
재료공학과	총무	노창열	95	조교	261-2441	
	회장	윤의상	77	가경동1508-1번지 한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233-8180	011-492-8784
컴퓨터공학과	총무	김미경	95	조교	261-2411	
	회장	송태훈	81	서초구양재동277-5(주)엘리트테크	522-0300	016-214-8788
환경공학과	총무	김창환	86			016-369-4701
	회장	신필식	84	송정동 보건환경연구원	220-5528	016-896-5854
건축공학과	총무	한재구	86	조교	261-2465	
	회장	김환호	79	용암동 무백로10240(하)용암빌딩10층	294-0064	011-463-3881
안전공학과	총무	장종규	83	사창동255-8전우빌딩201.토석건축	272-5725	011-486-8768
	회장	강민호	84	분평동 주공0파트 714-603호 안전문화강사	295-3098	019-409-3098
공업학과	총무	이종호	90	조교	261-2457	
	회장			미결성		
도시공학과	총무	엄경식	95	조교	261-2487	
	회장	임원욱	88	논현동278-1351빌딩6층 주해인건축	3438-8084	016-602-9720
공업교육과	총무	최창규	90	조교	261-2493	
	회장	박기주	74	가경동176-9 충북대부설고등학교	235-2348	
구조시스템공학과	총무	명철호	75	영동 79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235-0532	
	회장	심상규	92	충주시 칠금동 부영A 101-1209	842-0724	011-686-0724
농학과	총무	정진덕	92	조교	261-2409	
	회장	임명순	64	수원 장안구 이목동 원예연구소장	240-3510	
연초학과	총무	조용구	76	모교농과대학 식물자원학과 교수	261-2514	
	회장	유연현	69	수원시 당수동344(주)농업연구원 수원연구소장	419-1624	011-275-1624
산림과학부	총무	이철희	95	조교	261-2603	
	회장	윤정구	55	흥덕구 북대동829-11	264-5565	011-9845-5565
축산학과	총무	최태호	79	모교 산림과학부 교수	261-2536	011-9803-1926
	회장	박동훈	59	우암동 347-1번지	255-8185	018-419-2680
원예학과	총무	조성구	72	모교 축산학과 교수	261-2551	019-433-2551
	회장	이영영	78	강내탑연리290-5(주)스팀코리아	231-8815	011-486-5340
농업기계공학과	총무	김완규	86	강외면정충리충농중교육진흥연구소	862-5441	016-401-4638
	회장	김동구	78	진천군 유영곡리268연곡기근대표	533-6423	011-486-6423
농생물학과	총무	정성용	94	조교	261-2579	
	회장	황태구	80	충주시 가수동54-3(주)해삼 상무	852-8095	011-9782-8952
농화학과	총무	남상찬	94	조교	261-2552	
	회장	박광순	67	송정동 충북보건환경연구원	220-5521	011-487-2710
농공학과	총무	홍순달	69	모교 농화학과 교수	261-2564	
	회장	연광석	64	모교 농업기계공학과 교수	261-2582	018-326-2582
농업경제학과	총무	이민선	80	분평동1426 농업기반공사 공무과	290-3392	017-430-5381
	회장	김기종	75	괴산군 증평읍 연탄403 충북포장	838-2020	011-469-2430
식품공학과	총무	이한휘	96	조교	261-2587	
	회장	신인호	83	대덕구 대흥동 289-1번지 삼영제유농장기16-124호	042670-8820	016-898-7112
국어교육과	총무	권정인	95	조교	261-2565	
	회장	이재철	72	가경동 290 충북예술고등학교	235-6565	017-432-7192
영어교육과	총무	권오선	77	사직2동 6-3 청주여자중학교	273-7102	011-9843-2328
	회장	박정희	72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233-4516	017-433-4623
수학교육과	총무	오창택	80	가경동176-9 충북대부설고등학교	232-9390	
	회장	한동환	70	보은군 보은읍 보은중학교감	544-2615	011-487-8540
과학교육과	총무	조삼현	83	괴산군 감물면 감물중학교	833-9292	016-759-5340
	회장	손영철	71	산남동4-11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290-1240	016-403-8007
사회교육과	총무	김영미	98	조교	261-2723	
	회장	김수근	76	청원군기덕면 단재교육원 연구사	297-5914	016-417-1808
국민윤리교육과	총무	윤민중	80	청원군 강내면 미호중학교	233-0073	011-9841-1929
	회장	이혁섭	81	괴산군읍 괴산고등학교	833-1903	018-413-2319
지리교육과	총무	정동훈	94	조교	261-2706	
	회장	박종원	81	산남동4-11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296-4151	018-432-3468
역사교육과	총무	이대의	94	조교	261-2693	
	회장	이광복	78	충주시 성내동229번지 충주교육청 교육과	850-0530	011-481-0843
교육학과	총무	김병근	92	조교	261-2683	
	회장	신동주	79	진천군읍 진천고등학교	533-2802	011-404-9729
컴퓨터교육과	총무	김재훈	81	용암동 2033번지 삼당고등학교	294-0411	016-9296-2503
	회장			미결성		
컴퓨터교육과	총무	유민영	96	조교	261-2785	

단체 및 지회 동문회현황

● 단과대학 동문회 현황

(2004. 1월 현재)

구분	직책	성명	전공기수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자연과학대학	회장	송호근	물리79	개신동613개신주공 105-302호 CM(주)대원사		011-468-0814
	총무					
법과대학	회장	김수갑	80	모교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261-2628	011-9072-9441
	총무	조현범	83	대전 서구 둔산동 1299푸른노무법인	488-5211	016-210-4565
농과대학	회장	연대회	임학54	사직2동 170-26 (주)연홍 대표	276-6367	011-498-2826
	총무	석영선	연초68	모교농과대학 연초학과 교수	261-2520	011-468-2520
약학대학	회장	이종언	59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A 2-202	2252-3354	011-352-3354
	총무	이종길	77	모교약학대학 제약학과 교수	261-2826	011-498-2826
의과대학	회장	양승덕	85	북대동 119-1번지 양승덕이비인후과 원장	234-6090	016-420-1931
	총무	오예근	86	용암동 1596번지 순풍산부인과 원장	294-9555	011-9846-2206
수업과대학	회장	권민상	90	사직동 150-19번지 한빛동물병원장	277-7582	011-9840-7582
	총무	김태경	90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SK@02-1101	041559-9240	018-419-3110
생활과학대학	회장	이열훈	67	수동 180 충북교육대학원 원진로영재교육부장	229-1817	016-510-3852
	총무	김혜영	97	아동복지학과 조교	261-2793	

● 대학원 동문회 현황

(2004. 1월 현재)

구분	직책	성명	전공기수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대학원	회장	연광석	임학전공	개신동신48 모교 농업기계공학과 교수	261-2582	018-326-2582
	총무	김홍식	농학전공	개신동 신48 모교 농학과 교수	261-2513	011-465-5468
교육대학원	회장	김전원	교육행정	산남동 4-11 도교육청 교육국장	291-7716	016-402-7715
	총무	김수근	국민윤리	가덕면 삼이리 단재교육원 연구사	297-5914	011-9419-1806
행정대학원	회장	김홍욱	97	홍덕구 사창동 232-10번지	274-3008	019-490-3008
	사무국장	홍준기	98	내덕동 520-2 신화아파트 1-1207	211-1472	016-402-7145
산업대학원	회장	임운수	건설공학	문화동 89 충북도청 안전관리과장	220-4510	011-459-1999
	총무	이풍희	건설공학	북대동 2010 북대2동사무소 동장	234-1562	011-498-3004
경영대학원	회장	권오중	2	가경동 1508-1번지 농협 가경동 지점	232-8030	011-492-4211
	총무	김창영	10	비하동 송곡리 A 101-1204호	234-1156	011-462-2521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회장	이두영	5	사직동 12-16 청주방송 대표이사	262-8160	011-469-1315
	사무국장	정재은	5	송동 140-55번지 제트러미(주)대표이사	266-1593	011-9827-0088
법무대학원	회장	유근홍	99	운천동 596-1 전곡버스공제조합	268-7756	011-461-5632
	총무	박재동	02	모충동 금호타운 103-1502호	267-7007	016-406-2101
법무대학원 (고위법무지도자)	회장	박익순	57기	청원군 강변 1번지 3131 (주)신성로 대표	237-1900	011-409-2018
	사무국장	이도우	57기	가경동 형석1차A 102동 606호	275-2070	011-485-6122
농과대학 (전문농업인)	회장	조평희	17기	진천군 덕산면 신학리 398번지	536-4298	011-491-0822
	사무국장	황동연	57기	옥천군 읍 구말리 641-4번지	731-2829	016-468-0287
생활과학대학 (보육교사)	회장	홍순철	77기	북대동 2339 한성어린이집 원장	272-8337	017-433-8337
	총무	최영진	77기	사직2동 641-7 영진어린이집 원장	274-5667	011-289-5667

● 지회별 동문회 현황

(2004. 1월 현재)

구분	직책	성명	전공기수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충북대학교	회장	정승근	농학 62	모교 농대 식물자원학과 교수	261-2517	
	총무	한충수	농기계 78	모교 농대 농업기계공학과 교수	261-2580	
		이종희	임학 82	모교 분부 학생과	261-2020	011-486-5999
충청북도청	회장	박경국	농경 77	문화동 89 도청 경제통상국장	220-3100	011-459-0307
	총무	오문석	경영 79	문화동 89 도청 여성정책관실	220-2952	011-9845-4912
청주시청	회장	이명복	축산 69	문화동 109-1번지 성인동장	221-8451	016-309-8878
	총무	장상두	행정 79	북문로 37가 89 시청 관공계장	220-6922	016-456-7070
청원군청	회장	안병호	임학 63	각리 오창과학단지관리사무소장	251-3760	011-462-2629
	총무	임한석	독문 80	북문로 17가 171-3 자치행정과	251-3232	011-483-5689
농업기술원	회장	이철희	농학 67	오창면 농업기술원작물연구과장	219-2611	
	총무	연영홍	토목 87	오창면 농업기술원	219-2719	
농업기반공사	회장	김정환	농공 69	용암동 1602 농업기반공사	294-4184	017-204-2107
	총무	김문규	재료 79	분평동 1426 농업기반공사	290-3334	016-456-5470
농협	회장	안영학	연초 69	방사동 118 농협물류센터 대표	229-0114	011-462-6186
	총무	박종만	원예 83	북문로 37가 38-14농협충북지역본부	252-6231	016-294-5108
교직자동문회	회장	류태기	체육 61	사직1 동 556-4 청주시교육장	275-7730	011-9846-3463
	총무	김동명	수학 73	북대1 동 2457 흥덕고등학교	236-9064	019-482-4282
약사회	회장	이규진	약학 72	용암동 404 청주동화약국	296-6000	011-462-5150
	총무	이인환	약학 81	가경세원 3차A 상가 하나로약국	235-3500	018-421-3500
개신상공인회	회장	박용만	생물 81	수동446-45번지 열매밭(충)주심일컴퓨터	255-3303	011-461-0057
	총무	김덕래	회공 83	가경동 171-401 원일빌딩 4층	232-2289	011-459-2258
개신민우회	회장	김형근	경영 78	대성동 우성아파트 106동 401호		011-459-1933
	총무	유행렬	심리 84	북대동 1465	234-0449	016-456-0449
토목학회	회장	김주섭	토목 70	내덕1 동 772-10 주기회건설	223-6161	011-461-3005
	총무	윤일로	토목 81	삼주대학교 토목과 교수	530-5257	011-9809-8733
흥덕연구소	회장	최현호	법학 81	사직2 동 597-38 흥덕연구소장	269-0202	011-459-7770
	총무	이상훈	환경 88	북대1 동 625-8 2F (주)천수환경산업	268-4959	011-9829-3891
삼화전기	회장	유근실	건축 80	북대동 92번지 삼화전기 구미빌과장	261-0251	011-482-7853
	총무	신성인	공업화 89	북대동 92번지 삼화전기 고2품질팀	261-0395	011-486-8065
하이닉스반도체	회장	김학수	법학 82	황정동 1번지 노사팀	270-2241	011-348-8671
	총무	김영호	경영 89	황정동 1번지	270-2261	011-9800-2000
도로공사	회장	서정설	토목 73	성남시 금토동 293-1 도로처 팀장	2230-4461	011-9402-0326
	총무	김명호	행정 85	성남시 금토동 293-1 총무처연수부	2230-4452	011-771-0873
충대부설중고	회장	김동수	국어 73	가경동 176-9 충대부설중학교	231-3345	
	총무	유병관	체육 80	가경동 176-9 충대부설중학교	231-3345	011-771-0873
ROTC동문회	회장	정동주	농학 63	수동 399 대성여자고등학교	253-7422	011-9423-7091
	총무	신경휴	농화 66	사직2 동 133 청원군 교육청교육과장	273-1898	
		이진희	건축 81	봉명동 1050 토빈건축	268-8688	011-462-8688

제50차 정기총회 공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을 맞아 동문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50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동문 상호간의 만남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시고 동문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들려주시어 서로가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2004년 3월 20일(토) 오후 4시
- 장소: 청주관광호텔 대연회장 8층
- 안전
 - 가) 200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심의
 - 나)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 다) 임원선출
 - 라) 기타 토의사항
- 참가비: 20,000원

충북대학교총동문회장 강 신 우

SEEDTEC KOREA

경 제1회 충청북도 BIO농업인대상수상 축

21C 바이오종자산업은 (주)씨드텍코리아와 함께-

- 우량채소종자연구
- 친환경영농자재
- 농약 및 일반영농자재 판매
- 귀농 및 신규농업인 상담
- 친환경 농업인 상담
- 농민현장애로사항 상담



SEEDTEC



(주)씨드텍코리아

대표이사 이왕영 (원예 78학번)
농학박사

| 주소 |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290-5
 | 전화 | 043-231-8815
 | 팩스 | 043-231-8816